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조선족

朝鲜族

Cháoxiǎnzú

편 자 동진의
역 자 김순옥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顺玉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族：朝鲜文 / 董真祎编；金顺玉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 5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790-4

Ⅰ. ①朝… Ⅱ. ①董… ②金… Ⅲ. ①朝鲜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 ①K28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114454号

朝鲜族
CHAOXIAN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5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5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790-4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版权专有　侵权必究
邮购电话：024-23284335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网址：www. 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 taobao. com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쟈족)　　전산천
정 아(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쫭 족)
왕해연(챵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목 록

제1장 조선족개황

조선족기원에 관한 전설 /9
주몽에 관한 이야기 /11

제2장 조선족의 집거지

장백산에 관한 전설 /17
진달래에 관한 전설 /21

제3장 조선족의 사상관념

한석봉과 어머니 /23
한효자에 관한 이야기 /27
목도령에 관한 이야기 /29

제4장 조선족의 생활습관

랭면에 관한 전설 /37
마당에 백일홍을 심는 원인 /39
동이를 이게 된 이야기 /43

제5장 조선족의 인생의례와 세시풍속

조선족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유래 /47
신부가 신랑에게 새옷을 만들어주게 된 유래 /49
환갑잔치의 유래 /55
오곡제에 관한 전설 /59
단오절에 쑥을 매는 풍속의 유래 /63

제6장 조선족의 민간예술

도라지에 관한 전설 /67
아리랑에 관한 이야기 /69
칼춤의 유래 /73

제7장 조선족의 전통체육

조선족녀자들이 널뛰기를 즐기는 리유 /77

참고문헌

제1장 조선족개황

옛날 상주(商周)시기 이미 우리 나라 동북 료서해변지역으로부터 조선반도 서북부지역에 이르기까지 고조선민족이 생활했었다. 조선민족의 기원에 관한 제일 대표적인 전설이 바로 단군신화(檀君神话)이다.

조선족기원에 관한 전설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상고(上古)시기 하늘에는 천제 환인(天帝桓因)의 가족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환인의 아들 환웅(桓雄)은 인간세상의 절경에 도취되여 매일마다 인간세상의 생활을 갈망하였다. 어느 하루 환웅은 부황(父皇)께 인간세상에 내려가 나라를 건립할것을 청했다. 환인은 태백산일대가 산좋고 물좋고 토지가 비옥하여 환웅에게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천부인(天符印) 세개를 가지고 풍백(风伯), 우사(雨师), 운사(云师) 및 삼천명의 신병과 신장들을 거느리고 태백산꼭대기 신단수밑으로 내려왔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농작물, 생명, 질병과 형률을 관리하고 인간세상의 360가지 사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악을 징벌하고 선을 널리 알리며 백성들을 교육시켰다.

태백산에는 범 한마리와 곰 한마리가 한 동굴에서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환웅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활이 부러워 늘 환웅에게 인간으로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동굴에서 백일동안 해빛을 보지 않으면 소원을 이룰수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동굴속은 어두침침하고 습하였으며 먹을것조차 없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범은 중도에 굴밖으로 나오다보니 인간으로 변하지 못하였지만 곰은 배고플 때면 자신의 두터운 발바닥을 핥으며 끝까지 견지하였다. 환웅은 곰의 정직하고 무던함을 가히 여겨 21일만에 아주 예쁜 녀자로 변신시켜주었다.

녀자로 변한 곰은 매일 신단수아래에서 아이가 있기를 기도하였다. 하여 환웅은 곰녀와 결혼하고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俭)이라 지었다.

단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무예도 출중하였다. 중국 요임금(尧帝) 즉위 50년에 단군은 나라를 건립하고 1500년간 다스린후 아스달(阿斯达)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하면서 산신(山神)이 되였다.

진한시기에 이르러 고조선의 후예들은 예맥(涉貊)족과 융합되여 현재 중국의 료서, 길림 일대에서 부여국(夫馀国)을 세웠다. 부여인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성격이 호방하고 용감하며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지금의 조선족과 매우 흡사하였다.

주몽에 관한 이야기

서한말년에 부여왕 해부루(解夫娄)는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어 산신(山神)에게 제를 지내며 아들 하나를 점지해달하고 기도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탄 말이 곤연(鯤渊)련못가에 이르자 멈춰서며 큰 돌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부여왕이 사람들을 시켜 큰 돌을 옮기자 돌밑에 개구리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다. 부여왕은 매우 기뻐하며 이 아이가 바로 하느님이 점지해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궁중에 데려가 태자로 정하고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지어주었다.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하루는 금와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우발수(优渤水)에 사냥을 갔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였다. 그 처녀가 바로 하백(河伯)의 딸 류화(柳花)였다.

금와가 류화를 궁중으로 데려오자 그날부터 한줄기의 빛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비추는것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화가 임신하고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류화는 닷되들이만한 크기의 알을 하나 낳았다.

조선족은 중국 56개 민족의 하나로서 특정된 력사시기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주할 때 그들은 “조선”이라는 민족명칭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의미는 “아침해가 밝다”는 뜻이다. 조선족은 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장백조선족자치현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길림성 기타 지역과 흑룡강성, 료녕성, 산동성, 내몽골자치구 등에 산재하여 살고있다. 현재 총 인구는 약 2백만명이다.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금와왕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그 알을 개,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고 또 길바닥에 버렸지만 소와 말도 그 알을 밟지 않고 멀리 피해갔다. 마지막에 들에 버렸더니 많은 뭇짐승들이 몰려와 그 알을 지켜주고 심지어 새들은 날개로 그 알을 품어주는것이였다.

금와왕은 기이하게 느껴져 그 알을 도로 류화에게 가져다주었다. 류화가 이불로 그 알을 잘 싸서 따뜻한 곳에 얼마간 놓아두자 한 사내애가 알을 까고 나왔는데 그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아이는 한달이 되자 말을 하고 걷기 시작했으며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였다. 부여인들은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朱蒙)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주몽이라고 불리웠다. 금와왕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지만 모두 주몽의 재주를 따르지 못하였다.

부여의 대신들과 왕자들은 주몽이 사람의 소생이 아니니 앞으로 국가에 불리하고 후환이 있을수 있기에 일찍 없애버리자고 건의했으나 금와왕은 듣지 않았다.

금와왕은 주몽이 자신과 같이 하느님이 내려주신 생명이라 죽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 그를 살리기 위해 노예들과 같이 말을 방목하도록 하였다.

조선족을 략칭해서 “선족”(鮮族)이라 불러서는 안되며 조선족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반도를 점령하였을 때 그들은 조선인이 일본어에서의 아주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조”(朝)를 쓰는것을 시기하여 조를 빼버리고 “선족”(鮮族)이라고 부르게 하였기때문에 이것은 기시성을 띤 호칭이다.

주몽은 양마장에 이르자 제일 좋은 준마의 혀바닥에 가는 바늘을 찔러놓았다. 준마가 아파서 먹이를 먹지 못하자 점차 점차 여위게 되였다. 왕공귀족들은 건실하고 살찐 말들을 다 뽑아가고 빼빼 여윈 준마(骏马)만을 주몽에게 남겨주었다. 주몽은 즉시 바늘을 빼고 정성들여 사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마는 건실하게 되였다.

얼마후 금와왕이 왕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사면팔방으로부터 화살이 주몽을 향해 날아왔다. 주몽은 왕자들이 자기를 해치려 함을 깨닫고 화살을 피해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어머님께 고하였더니 류화는 주몽더러 먼곳으로 가서 자신의 용맹과 재주로 큰 일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였다. 주몽은 어머니와 작별하고 준마에 올라 오이(乌伊) 등 세 친구와 함께 남강(南疆)을 향해 떠났다.

주몽일행이 한창 도망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주몽이 하늘을 향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백(河伯)의 외손자입니다. 지금 도망가고있는데 뒤쫓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하리오?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니 많은 물고기와 자라, 새우들이 물우로 올라와 남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주어 그들을 건느게 하였다.

뒤에서 급히 쫓아오던 부여국의 병사들이 다리의 중간쯤에 이르러자 물고기와 자라, 새우들이 갑자기 사라져 병사들은 강물에 빠져죽고말았다.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은 흘승골성(纥升骨城), 현재의 료녕성 환인현 오녀산 고구려산성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립하고 제1대 임금으로 되였는데 력사상 동명왕(东明王)이라 불렀다.

14세기말에 리씨왕조(리성계가 건립)가 고려를 대체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였다.

고구려: 중국 동북 예맥족의 한갈래로서 기원전 37년에 부여인 주몽이 건립하였고 그 후예들이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475년 고구려는 백제를 함락하고 한강류역을 정복해 극성기에 이르렀다. 668년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 련합군에게 멸망되였고 당나라는 그곳에 안동도호부(安东都护府)를 설치하였다.

제2장 조선족의 집거지

중국조선족은 주요로 장백산지역에 많이 살고있다. 아름다운 장백산 천지는 수질이 맑아 마치 공중의 푸른 옥과 같다. 삼강의 발원지로서 장백산에는 아름다운 전설도 많다.

장백산에 관한 전설

전설에 의하면 옥황상제(玉皇大帝)에게 딸이 셋 있었는데 큰딸은 송화, 둘째딸은 압록, 막내딸은 도문이라 불렀다 한다. 천하일색인 그녀들은 아침노을처럼 눈부시고 신월처럼 아릿다와 옥황상제는 그들을 궁밖에 나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녀들은 낮에는 어화원에서 꽃구경이나 하며 놀고 밤에는 별빛아래서 달이나 구경하며 지냈기에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어느날 막내딸 도문이가 꽃구경을 하다 꿀벌과 나비들이 나풀나풀 춤을 추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것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궁중으로 돌아온 그는 새장의 새를 바라보며 "나는 천하가 부러워하는 옥황상제의 딸이지만 자유가 없으니 새장의 새와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들어 그 새를 놓아주자 새는 너무 감동되여 감사의 뜻으로 짹짹 몇번 울더니 먼곳으로 날아갔다.

또 어느날, 도문이가 창가에 앉아 먼곳을 바라보고있는데 홀연 하계에서 한줄기의 이상한 빛이 반사되여 궁금해서 하계를 굽어보니 깎아내린듯한 절벽아래로 거울같이 맑은 호수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는 얼른 큰언니 송화와 둘째언니 압록을 불러와 그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를 보여주었다.

세 자매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여 당장이라도 내려가고싶었다. 그들은 옥황상제를 찾아가 하계에 내려가 좀 놀게 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옥황상제는 그들의 성화에 못이겨 할수없이 동의하였지만 해지기전에 꼭 천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